



지난 25일 신한군 사기장을 방문한 캐나다 마티 그로스(왼쪽) 감독이 동영상을 보며 도자기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중걸 기자

한국 도자에 푹 빠진 캐나다 다큐 감독

일본 도자기에 영향을 끼친 고려·조선 등 한국 도자기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하려고 캐나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을 찾았다.

마티 그로스(69) 감독은 지난 25일 낮 12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신정희요(대표 신한군·58)를 찾았다.

그는 도자기 등 공예품의 역사 등을 추적하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제작자다. 이날 마티 감독은 한국전쟁 이전인 1935년 한국문화가 담긴 30분 분량의 동영상을 들고 신한군 사기장을 만나려고 양산을 찾았다. 동영상 속에는 1935년 울산 태화루와 경주, 서울, 금강산, 만주 등 각 지역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영국의 대표적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1887~1979)가 일본 도예가인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와 함께 한국을 유람하면서 촬

1935년 한국 담긴 동영상 속
도자기 모습에 반한 마티 감독
양산 신한군 사기장 직접 방문
내년 다큐 제작 관련 의견교환

영한 무성 동영상이다. 영상에는 6·25 전쟁 때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경주 불국사 주변 2층 집과 옹기·도자기 등 진기한 풍물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입수한 마티 감독은 동영상 속 도자기를 추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신한군 사기장을 소개받고 이날 양산을 찾았다. 마티 감독은 신 사기장과 함께 동영상을 보며 옹기와 도자기 등 당시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신 사기장의 달항아리 등

작품을 감상하며 도자기 등 민예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티 감독은 신 사기장과 버나드 리치, 야나기 무네요시가 당시 한국의 도자기 제작과정을 직접 보면서 스케치(드로잉)한 그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자기 제작과정 등 도자기 역사를 추적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 그는 내년 여름께 양산을 다시 찾아 도자기 제작과정과 도예의 역사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군 사기장은 “도자기는 물론 민예품에 깊은 조예가 있는 마티 감독이 한국 도자기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우리나라가 도예의 종주국이라는 문화의 역사를 다시 확인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걸 기자 jgkim@idomin.com

※ < 아이서퍼 모바일 >에서 공유 되었습니다.